

“문화컨트론타워 문화부시장제 도입 광주예술인 집·청년문화의 집 건립”



지역 30개 시민문화예술단체는 11일 광주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부시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30개 문화예술단체, 광주시장 후보자에 10대 과제 제안

문화부시장제 도입, 광주예술인의 집과 청년문화의 집 건립,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조례 제정...

지역 시민문화예술단체들이 광주시장 후보자들에게 광주시 문화정책 방향과 10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선 7기를 이끌어갈 광주시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안들을 제시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 광주예총(회장 최규철), 상상실현네트워크(사무처장 정두용) 등 지역 30개 시민문화예술단체는 11일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10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문화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후보자의 답변을 받은 후 17일 각 후보의 정책 수용도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 후에는 광주 시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정책 반영 촉구 및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 조례 제정 등 요구

17일 수용 여부 평가 발표

단체들이 제안한 문화정책 방향은 크게 ▲자유, 다양성, 협치를 근간으로 광주시 문화행정 전면 혁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이 실현되는 도시 ▲시민문화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문화적 삶이 구현되는 도시 등 세 가지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10가지를 제안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왔던 문화부시장제는 문화도시 광주의 문화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치적·사회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협치 조례 제정도 주장했다. 광주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실질적인 협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광주시 문화 행정 파트너로서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제안이다.

또 오래전부터 논의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순환근무하고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과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의 공모를 진행하고 문화전문위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광주시 문화기관 이사회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실현을 위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등도 강조했다. 창작 여건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과 사회 공공재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시민문화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게 대표적이다. 또 예술가와 기획자, 시민이 소통하는 문화 공간이 될 ‘광주 예술가의 집’ 건립, 문화예술지원 보조금 사업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밖에 각 구별로 청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일 작가들이 전하는 반핵 메시지

은암미술관 12일~5월 2일 ‘핵核몽夢2’ 전
홍성담 등 8명 참여...개막일 토다 밴드 공연

‘한·일 작가들 반핵에 대해 이야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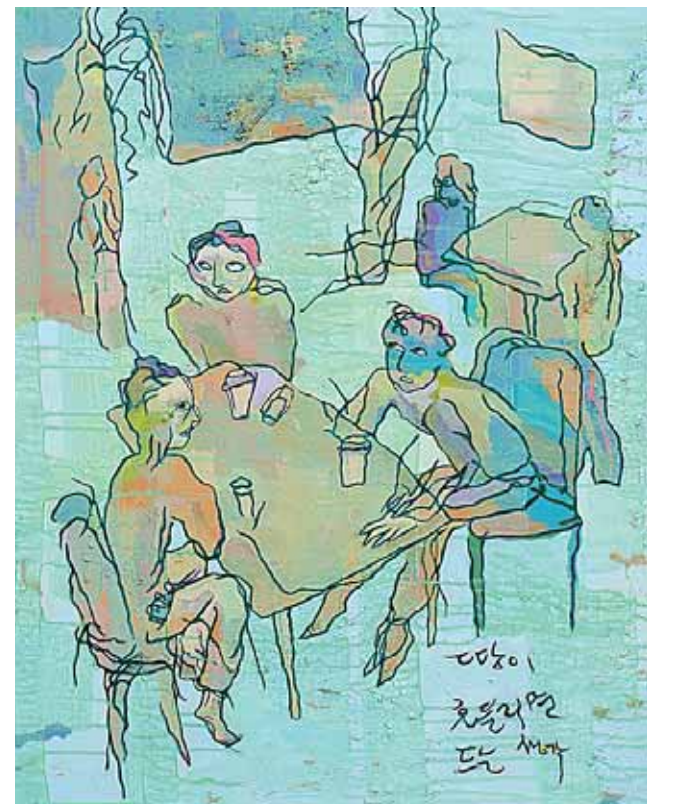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획 전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핵核몽夢2’가 열린다.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광주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

전시에는 일본 작가 아키라 추보이를 비롯해 박진, 박미화, 방정아, 정정엽, 이동문, 정철교, 홍성담, 토다(TODA) 밴드 등 핵동작가 모임이 참여한다. ‘핵동작가모임’의 ‘핵몽’ 전시는 지난 2016년 ‘동해안 원전 번개담사’를 계기로 시작돼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 예술가들의 자발적 의지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 광주 전시에 이어 5월에는 서울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개막일인 12일 오후 5시에는 아키라 작가와 정정엽 작가가 퍼포먼스와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며 토다(TODA)밴드는 핵발전소의 위험성 등을 내용으로 한 퓨전 음악공연을 펼친다.

이번 전시에서 박진 작가는 원전 관련 미니어처 작품과 전자그림 작품 등을 선보이며 박미화 작가는 일본원전사고 내면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휴를 통해 작품으로 빚어냈다. 방정아 작가는 후쿠시마원전 담사를 통해 느꼈던 현재 우리 삶의 위기를 작품에 담았으며 이동문 작가는 핵발전소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나타냈다.

그밖에 정철교 작가는 핵발전소 근처 마을 풍경의 변화된 모습을 화폭에 담았으며 홍성담 작가는 ‘합천하로시마’와 ‘핵몽’



방정아 작 ‘꿈이 흔들리면 드는 생각’

전 참여 작가들과 영광 한빛원전을 답사한 후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아키라 작가는 제안 패널리스트와 영상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231 52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갤러리

오광섭 작가 초대전

5월 1일까지...20여점 전시



▶‘리허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용)이 서양화가 오광섭 작가 초대전을 병원 1동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오는 5월1일까지 ‘리허설(Rehearsal)’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오 작가는 발레리나 등 여인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눈에 띄는 건 발레리나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다. 조명이 켜진 무대 위 화려한 모습 대신 무대 위에서 토슈즈를 고쳐 신거나 스트레칭하는 모습 등을 섬세하게 잡아내며 또 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또 공연을 위해 무대로 나가기 전 막

뒤에서 다양한 포즈로 스트레칭을 하며 기다리는 무용수들의 뒷모습에선 멋진 발레리나의 꿈을 펼쳐보아겠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전남대 미술과를 졸업한 오 작가는 지금까지 개인전 6회, 단체인 250여회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신협회, KAMA, 한국현대미술학회, 신기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0-510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5월 15일까지 임오순 작품전

30일 시민체험프로그램

(재)광주여성재단은 5월15일까지 재단 내 북카페에서 임오순 작가의 ‘내 손안의 기적’ 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방재료를 이용해 만든 인테리어 소품 전시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된다. 시민체험프로그램은 오는 30일 오후 2

시 재단 8층 북카페에서 시민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이 날 프로그램은 한약재를 소재로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재료를 선택해 방향제 주머니를 만들어보는 ‘자기만의 방향제 만들기’이다.

27일까지 재단홈페이지(www.gjwf.or.kr) 및 이메일(vivid361@naver.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3/전음재기자 ejf6621@kwangju.co.kr



‘문화집단 열혈지구’, ‘흥놀이 꽃잠마 모놀로그’ 참가자 15명 모집

문화예술단체 ‘문화집단 열혈지구’가 ‘2018 흥(興)놀이 프로젝트 놀이하는 사람들 No 4. 꽃잠마 모놀로그-what is your true colors?’(이하 ‘흥놀이’)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은 2018년 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흥놀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줌마’라는 호칭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진정한 본색(本色)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문학, 연극, 인형극, 미술, 영상, 색채학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시민들이 주체가 돼 다채롭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해 나만의 ‘진짜 색깔’을 찾아 떠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색(色)다름을 만난다. 또 참가자들의 ‘색(色)다름 이야기’는 무대 위의 공연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다.

프로그램은 오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15명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9893-3249, 062-670-7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소확행
프렌드
확신

북간 5주년 - 발행인의 편지
다섯 번째 봄
새순처럼 차오르는 첫 마음

- 소확행 라이프 꿈꾸는 이들
- 출판가 소확행 신드롬
- 대중문화 사로잡은 소확행

스포츠이야기
‘디펜딩 챔피언’ 호랑이 군단
최강 전력 그대로V12 시상 출발

해양수산부 공동기획-한국의 국가어항②
활기와 체험,
서해안권 국가어항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⑤
호수에 기댄 핀란드인의 삶
핀란드 레이크랜드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발족⑥
남만, 지혜 실은 물 위 서점
런던 리젠트 운하
‘워드 온 더 워터’

예향 초대석

나무칼럼니스트 고규홍
“나무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죠”

광주콜리 다시보기④-
소통의 오두막과 서원문 재등

사람, 자연, 삶 속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폴리

문화연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의 즐거움
ACC 브런치 콘서트

문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⑥
지리산처럼 유장한
소설가의 공간
이병주 문학관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②
‘천재 감독 두 명의 전쟁영화 두 편 스티븐 vs. 멜릭

전시리뷰
<이강하의 길>
이강하미술관 개관전

트렌드 따라잡기⑦
혼술이 외로운 그대
‘복막’ 하실래요?

대나무 사이로
부화꽃 피는 생태도시
다양한 재해

봄날 문화소풍 즐기며
정겨운 옛 시간과 자연 풍으로
담양식 데자뷰, 딸깍비